

제9회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결과

— 치안연구소 운영계 —

- 日 時 : '99. 12. 10(金), 14:00~17:40
- 場 所 :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(18층)
- 참석인원 : 학계인사(주로 경찰행정학과 교수), 대학생 등 150여명 참석
- * 경무기획국장, 방법국장, 경찰청 직원 및 경대교관 등 경찰관 다수 참석

□ 세미나 진행

【제1주제 :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】

○ 발표요지

최 응 렬 계명대 교수

즉결심판대상의 한정 및 구성요건 구체화, 즉결심판청구권 검토, 구류형 폐지, 즉결심판장소의 확대 등

○ 토론내용

김 충 남 관동대 교수

현행제도 유지 찬성

황 정 익 탐라대 교수

현행제도 유지하되 경찰의 대응논리 개발이 시급

※ 즉결심판 종결청구권 명문화와 경찰 즉심청구권 남용을 방지키 위해 경찰간부의 예심심의제도(경찰서내 작은 법정구성) 실시로 객관화

이 동 권 치안연구소 연구관

◇ 현행 즉결심판제도 운영실태 소개

- 보호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
- ※ 가칭 「즉결피의자의 대기실 수용」에 관한 별도 규정 명문화
- 불출석 심판대상 한정으로 경미사범에 대한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

출석 심판대상 확대 등

- ◇ 사법개혁추진위의 즉심제도 개선안의 문제점
 - 경찰관계자, 경찰관련학과 전문교수 참여 등 의견개진 기회 없이 개혁시안 발표
 - 향후 입법과정에서 대응논리개발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현행제도 유지(현행제도 유지논리 소개)
 - * 손연(중국 경정급) 교환교수는 “경찰수사권은 중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 안타깝다”고 발언함.

【제2주제 : 경찰순찰제도의 개선 방안】

○ 발표요지

이 윤 근 동국대 교수

문제지향적 순찰과 범죄분석에 따른 순찰방법의 다양화 및 민간자원의 순찰활용방안 제시

한 상 암 원광대 교수

최첨단 범죄분석에 따른 순찰방법의 다변화 필요

* 서울경찰청의 컴스텟기법 전국 확대 조기추진 필요

박 기 태 경찰대 교관

◇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공요건

- Partner Ship 의사결정의 하향화, 문제지향적 순찰
- 치안서비스센터의 기계적 도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.

◇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분담 및 한계 제시